

지상 법석

'참사람' 자각할때 모순해결

이 세대의 올바른 삶이라고 하면 그 부처 마음자리가 이성을 지배하고 부처 마음자리가 감각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부처 마음자리가 감각으로 작용해서 감각이 되는 인격이 원만한 인격인 동시에 과학 문명도 부처 마음자리 바탕의 원리에서 새로 창조하여, 일체 인류를 부처님으로 존경해서 서로 봉사하는 그러한 행복한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문명을 이룩한 동기가 첫째 '대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자. 대자연의 법칙을 연구해서 우리 인간이 이용하자' 이러한 뜻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대자연을 정복하지는 것은 하나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문명 자체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이성으로 개발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욕

의 올바른 삶이라고 하면 그 부처 마음자리가 이성을 지배하고 부처 마음자리가 감각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부처 마음자리가 감각으로 작용해서 감각이 되는 인격이 원만한 인격인 동시에 과학 문명도 부처 마음자리 바탕의 원리에서 새로 창조하여, 우리 인간이 서로서로 그 부처 마음자리에서 부

중세기로 돌아가자는 세계 역사의 역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과학문명을 밀반쯤할 수 있는 종교는 어떠한 것이냐 할 때에 과학문명과 그 이성과 모순이 안 되면서 과학문명을 초월해서 과학문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주적·자유적으로 역사를 창조하는 원리야 이 과학문명의 막힌 벽을 타개해서 인류를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와는 달리 우리 불교야말로 철학적이거나 과학을 초월한 것으로 인간 속에서 자기 창조성을 개발한 종교인만큼 자주적·자유로이 살면서 어디든지 걸리지 아니하고 자유자재하게 새 역사를 창조하는 원리가 우리 불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과학문명을 밀반쯤하고 세계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불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종교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신도들의 마음자리에 따라서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각적 가치를 말하지만, 자기 욕망을 해결하려고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 참으로 훌륭한 종교라고 할 수 없어요.

종교는 감성만 초월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 거짓이다, 착하다, 악하다 고 비판하는 이성적 가치까지도 초월한 근본원리야 그것이 인간의 모든

와 같이 음성이나 형상으로 부처님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인류는 둘 아닌 한몸

그러나 더욱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부처 마음자리로 들어가면 부처 마음자리는 전부 우주를 창조하고 형성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동상불을 모신 것이 아니라, 더 차원이 높은 진리 입장에서의 동상불은 오히려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도 초월한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일거일동은 이 불가사의한 법계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내는 한량없는 공덕이 되는 것이니 조그마한 불사가 아니라 바로 무한의 부처 마음자리 작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말씀하기를 '예들이 장난으로 흉심으로 부처님을 조성한다거나 모래로 부처님 탑을 쌓는다고나 또는 법당에서 한번 합장한다거나 나무를 하더라도 이미 성불을 마쳤느니라' 이의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량없는 공덕을 지어서 성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미 성불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자리에 들어가면 우리는 한량없는 공덕을 벌써 지어왔고 벌써 성불해 있어서 다 구제가 돼 있는 것이 인간의 참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참모습 바탕에서 우리인류는 평등하고 또 둘이 아니고 한 몸인 것입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상대론과 연기론 (I)

김성규

엄밀한 의미에서 '상대론'은 '연기론'의 부분집합이다. 모든 물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보편적인 진리가 '상대론'이라면 생각을 할 수 있는 모든 생명들의 인식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가 '연기론'인 것이다.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귀납법과 연역법이 있다. 먼저 귀납법은 특수한 몇 개의 예를 들어 일반적인 법칙이 성립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다윈도 죽었다. 아인슈타인도 죽었다. 소크라테스도 다윈도 아인슈타인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는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다음 연역법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필연적으로 참이다'라는 논리 전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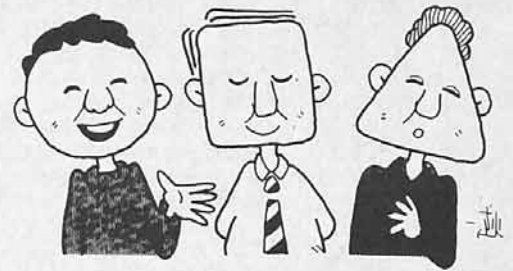
여기서 우리는 상대론과 연기론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물질적인 세계와 마음의 세계에 대한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크다, 작다, 많다, 적다 등 보이는 대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른다. 그렇지만 옛날 우리 조상들이 서양을 몰랐다고

므로 귀납적으로 마음을 담고있는 그릇인 육신에 맞는 이론은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맞는 이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의 인식에 대한 '연기론'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것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 생각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생긴다.
이것 없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없고
이것 멸함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멸한다.

태어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있고, 남녀의 만남에 의한 애욕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집착이 생기게 된다. 태어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또한 없으며, 올바른 관할과 청정한 수행에 의하여 애욕이 멸함으로 말미암아 집착 또한 멸하게 된다. 부처님 당시 하 나쁜 아들을 잃고 실성하게 된 한 어머니가 자식을 살려달라고 부처님을 찾아왔다.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성중에서 들어가 사람이 한 명도 죽지 않은 집의 소금을 얻어오면 자식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한다. 정신이 없는 그 여인은 당장 자식을 살려낼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집집마다 소금을 얻으러 다녔다. 온 성을 다 돌아다녔지만 사람이 죽지 않은

물그릇의 모양에 따라 물의
형태가 이뤄지듯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이 육신도 형성된다.



서양이 없었던 것이 아니듯이 모른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세계를 모른다고 마음의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육신의 껍질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된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친구가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 들었다면 그때의 얼굴은 어떻게 질리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릴 것이다. 그 슬픈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그때의 마음인데 슬픈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육신에 전해져 육신을 통하여 표출되는 것이다. 온 가족이 모여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 내용이 원인이 되어 남편이 부인에게 심하게 화를 냈다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게 맛있는 밥맛이 싹 달아날 것이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일은 마음이 하지만 그 영향은 바로 육신을 통하여 외부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태는 이 육신을 통하여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다. 물 그릇의 모양대로 물의 형태가 이루어지듯이 마음의 상태대로 이 육신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

잡은 한 집도 없었다. 여기서 그 여인은 죽음이 자식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태어난 자는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 우리도 백 년 후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에 대해서 자신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진실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돈과 권력에 집착하여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살고있다.

앞에서 상대론과 연기론(I)에서 언급한 물질의 세계에 대하여 '상대론'이 진리이듯이 마음의 세계에 대하여 '연기론'은 진리인 것이다. 모든 물체의 운동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상대적으로 바르게 파악한다면 우주의 질서와 생명의 인식에 대해서도 자연히 연기적으로 바르게 인식될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빛과 같은 속도로 달리면서 물체를 보면 물체가 어떻게 보일까?'라는 화두에 대한 정답이 '상대론'이라면, 붓다의 '왜 모든 인간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화두에 대한 정답이 '연기론'이다.

(영남대 의대교수)

대립분열·폭력·무질서 이기적 탐욕에서 비롯 걸림없는 동체대비 실천만이 잘 살 수 있는 길

망이 깔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개발하고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과학문명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문명은 욕망이 과학적 기술과 이성을 이용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원만한 인격자라고 하면 아가 말한 바와 같이 부처 마음자리의 작용으로써 감각과 욕망이 작용해야 원만한 인격자라고 할 수 있는데 거꾸로 오늘날 과학문명은 욕망이 과학적 기술과 이성을 이용합니다. 산업사회라는 것은 모든 것을 경제적으론만 개발하고 건설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적이라는 것은 욕망이 아닙니까? 이와같이 오늘날 문명은 욕망으로만 살리고 하니까 서로서로 해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인성이 할약해서, 이와같이 계속 과학문명을 욕망으로 악용한다고 하면 인류는 결국 파멸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

처님과 같이 자기도 부처님인 동시에 일체 인류를 부처님으로 존경해서 서로 봉사하는 그러한 행복한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역사 창조하는 원리

오늘날 과학문명은 더욱더 발전시켜야 하지만 과학문명만으로는 도저히 인류가 평화스럽고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위기의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 과학문명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벽을 타개하는데는 훌륭한 종교의 근원적 원리가 밑받침 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오늘날은 이와 같은 과학 지성과 모순이 된다거나 절대 북중한다는 원리를 가지고 저 중세기가 아닌 현실에서는 통할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학과 모순이 되는 종교를 절대 북중하고 절대 의지해서 타율적으로 북중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저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역사적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믿어도 단순히 감각적 가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해결하는 데에 감성적 가치만으로는 해결이 안되고 오늘날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이성적 또는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인생 문제라든가 세계의 깊은 문제는 이성까지 초월한 부처 마음자리, 인간 우주의 근본 생명체를 깨닫지 아니하면 해결이 안됩니다. 그 참 모순이 말하자면 부처님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하자면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다운 부처님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말씀하기를 '약이색견야 이음성구야 시인행사도 불능견어래' (若以色見我 以音声求我 是人行道 不能見如来)라고 말한 바

그러니까 거기서 자비심이 나와서 우리는 자비·화합 바탕에서 이 세상의 모든 분열·대립·안락을 해결하는데 평화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유행하는 대립을 투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철학이 아닌니까, 대립을 투쟁으로 해결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역사라고 되어있는데 그와같은 사상과 행동으로 나가면 인류가 전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인류의 위기가 전쟁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상 가지고는 인류의 과멸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서로의 대립을 화합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우리 민족도 평화통일 할 수가 있고 세계인류를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모습이 인간상인 것이며, 인간의 참다운 실존이 바로 부처님이지 따로 부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 교육기관

1.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00명, 통신과정 00명)

2. 지원자격: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3. 전형방법: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5년 2월 말일까지

5. 교 과 목: 주 5일 수업

6. 특기사항: 졸업 후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1학기	불교학개론	선종사상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경토사상
1학기	최석이론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미술	유식철학
2학기	최석실수	불교성철학	불교복제론	수교의정규제	원전강독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 바람
☎ 02-776-7156, 773-9171, 754-1613 FAX: 756-7258

대원불교대학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1995학년도 법사를 육성하는 최고의 전문 교육기관

통신 야간 법사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모집안내

* 전액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 즉시 보내드립니다 *

특전

1. 모집학부: 법사과정 · 오종교법사과정 · 오종대법사과정

2. 모집인원: 출강 00명, 통신 00명

3.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자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입학원서(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법사과정 · 오종교법사과정 = 1년
오종대법사과정 = 2년

6. 원서교부 및 접수: 1995년 1월 5일 ~ 2월 28일까지

☎ 110-1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737-5305 FAX: (02) 720-1836

韓國佛敎法師總聯合會 附設
한국불교법사대학

☎ 110-1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737-5305 FAX: (02) 720-1836